

이월호

Contents

‘2016년 신년사	2
2016년 강북센터 파이팅~~~!!!	4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의 심습을.....	6
나는 나쁜 장애인	8
조선시대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0
장애인과 복권	12
영화 ‘어린왕자’	14
장파라치	16
2016년 새롭게 바뀌는 정채들~!!	18
이달의 정보	20
이달의 시	22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23
2016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기총회 광고	24





신년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 이용자 및 회원 여러분!
희망과 번영의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상징하는 병신년(丙申年)을 맞이하는 2016
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가정마다 행복이 증만함과 보람찬 한해가 되시
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저희 강북센터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료상담을 비롯해 권익옹호(장애인과 가족), 개별·집단
ILP(자립생활기술훈련), 한·일 국제세미나 (지적장애인과 자립생
활),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플래시 몼, 그리고, 김치담그기, 등
여러 사업을 회원 및 이용자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에 강북센터는 이용자 및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
며,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작년보다 더 발전한 모습으로 강북센



터 이용자 여러분과 회원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동안 다채로운 성장의 기반위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성장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천합니다.

2016년 을 해에도 위 사업과 같은 다양하고 장애인자립생활의 이념에 맞는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 및 이용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새해에도 이용자 및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북센터 이용자 및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병신년 새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정종남

謹賀新年

I wish you a Happy New Year



2016년 강북센터 파이팅~~~!!!

허성현



2016년 1월 4일 시무식 이후로 매주 월, 수, 금요일 마다 회의 및 사업계획서 발표가 있었다. 정종남 소장님 주도하에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주로 조직구성, 사업진행방향 및 설정, 역할분담, 세부사업아이템, 사업계획서에 관한 안건 등이 다루어졌다. 2016년에는 박계형 팀장, 이하

용 팀장, 허성현 팀장, 전난희 팀장으로 서울시센터지원사업팀이 구성되었다.

TF팀 구성에 이어 역할분담이 있었고 각자의 영역별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의견 조율을 위한 회의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지원사업팀의 총괄은 소장님께서 직접 하기로 했다.

각자가 영역별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쓰고 발표를 하면 의견을 나누고 상호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 진행된 회의에서는 2016년도의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오고갔다.

회의에서 다루어진 사업 내용 안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료상담은 <찾아가는 동료상담>,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동료상담가 보수교육>에 대한 의견을, 자립생활기술훈련[ILP]은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집단지립생활기술훈련>, <단기체험홍>, <체험 김치 담그기>, <한일국제세미나>에 대한 의견을, 권익옹호는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플레시몹>, <장애인파파라치>, <의회모니터링>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작년과 차이점은 동료상담파트에 속했던 <한일국제세미나>가 세미나주제가 주로 자립생활과 관련된다는 팀원들의 의견에 따라 자립생활기술훈련 파트로 분류되었고, 동료상담에 보수교육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체험 김치담그기>는 봄, 가을로 연2회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찾아가는 동료상담>은 좀 더 자주 장애인당사자 집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선택사업은 도어락 뿐만이 아니라, 경사로, 리모컨식스위치를 이용자가정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도배서비스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클리닝 사업을 추가하여 장애인 가정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가역량강화워크숍과 기타 사업으로 자조모임인 <괘검클럽>, <종이접기>,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센터, 연대사업 기타 등 등.....마라톤식 회의주 3회 있었다.

팀원 각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발표와 수정작업을 위한 상호의견 조율을 끝낸 후 2016년 총 사업실행계획서 대한 치열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팀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2016년도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견과 제안들을 이야기 하는 과정이 힘들기는 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묶어가는 과정이 참 좋았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속담처럼 앞으로도 쭉~~욱 우리 서울시지원사업팀이 함께 하며 소통하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미에 적어본다. 강북센터 파이팅~~~!!!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의 실습을…….

이희중

기존의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



사실 비장애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이미지는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만들어진 영상 이미지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 얼굴에 검댕을 묻혀가면서 리어카에 실은 연탄을 나르는 봉사를 하고, 명절에 독거노인들에게 방문하여 같이 명절 식사하는 식의 봉사과 같은 액션이 큰 영상 이미지를 접하면서 일반인들은 '아 사회복지는

저런 노동을 통해 이뤄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에게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 때 자원봉사 점수를 얻기 위한 주변의 강요 아닌 강요로 이뤄지던 복지관에서의 청소와 같은 노동. 대학교에서 과목의 학점을 얻기 위해 억지 아닌 억지로 하여 큰 의의를 두지 않았던 실습. 큰 관심이 없던 복지에 대한 생각. 그에 대한 지식은 다른 어떤 비장애인보다 전무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직장을 다니다가 어떠한 이유로 퇴사하고 다른 꿈을 시작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의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었고 학점은행제로 자격증 취득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회복지실습과목은 대학졸업 후 다시는 실습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것만 같던 제게 찾아온 다시금 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학생 때보다는 조금 여운 머리로 생각한건 사회복지사를 생각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복지의 다양한 분야와 그에 대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실습기관을 선택할 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누구보다 복지혜택을 필요로 한 곳이 어디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번쩍 떠오른 곳이 장애인복지기관이었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근처에 있는 강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실습기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개념은 다

큰 어떤 복지 개념보다 지식이 부족했고 경험이나 생각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장애인 복지란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일 때 도덕책에서 배운 것 마냥 친절하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도의 행위. 그 정도가 저에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생각의 한계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단순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개념과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습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실습을 통해서 느낀 점은 ‘~~해서 좋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 듯하다.’같은 상투적인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습을 통해 저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과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습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다수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시고 본인 업무에선 전문가이신 분들로써 그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한 사회복지 학도여야 한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직원 분들의 대화 내용과 그 분들의 업무 내용은 실습생이기에 다 알지 못했더라고 변명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다양하고 체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주택 방문을 통해 몸이 불편하지만 비장애인보다 더 열심히 더 노력하여 사는 장애인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보다 활동이 편한 몸을 가지고도 이렇게 방만하게 사는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통해 바뀐 점



짧은 기간 동안 실습을 진행하면서 나의 바뀐 점을 꼽으라면 그동안 남보듯 했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오늘 같은 날은 휠체어 타고 다니기 힘들겠다.’ 길가를 걸다가도 횡단보도에 서 있는 그들을 보면 ‘잘

건널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실습을 통해 얻어가는 큰 변화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습을 끝마치며

3주라는 기간 동안 부족한 실습생인 저를 여러 부분에서 챙겨주시고 신경써주신 소장님과 국장님, 팀장님,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실습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느 위치에 있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쁜 장애인

김소연



어린 장애인은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 착한 장애인은 '장애우', 번듯한 직업을 가진 장애인은 '역경을 극복한 훌륭한 우리의 이웃'이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며 맞서 싸우는 장애인은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성격 드센 X신'이 되고 만다.

나쁜 사람들. 비장애인의 입맛에 맞게 살아가는 장애인에게만 열려 있는 가슴들. 싹뿔 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순응하란다. 선심들 쓴다. 착하게 굴어. 곳곳하게 살면서 성과를 내. 그럼 우리 사회에서 살게 해줄게.

TV에 출연한 장애인의 삶을 들여다보고는 칭찬이랍시고 서슴없이 이런 감상평을 날리기도 한다.

"반성했어요! 저런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어

요!"

미친. 골형성부전증으로 인한 작은 키로 언론에서 '엄지공주'라는 별칭을 붙여준 윤선 아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위와 같은 말을 참 많이 들었던다. 하지만 그녀는 말한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적 없었다"고. "나도 누군가가 우러러보는 예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었을 뿐"이라고. 무척 담담하고 솔직한 발언이어서 마음에 남았다.

어느 누가 남의 행복을 일깨워주는 비교대상으로서, 미천한 도구로서 존재하고 싶을까.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장애인에게 저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 게 아니다.

동정도 멸시도 소름 돋도록 과한 친절도 그들을 진심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장애는 개인차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는 판별기준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일 뿐.

제발 사람을 보자. 장애인은 해맑은 천사도 아니고, 자존심 없고 수치심도 모르는 기계도 아니고, 어떤 손가락질에도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도인도 아니다.

사람이다. 그냥 사람.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생각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박남주

오늘날 장애인들은 일상 속에서 많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먼 옛날 장애인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을까?

먼저 고대 서양의 경우를 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장애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야한다.”했고, 플라톤 역시 “장애아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한다.”라고 했다. 이처럼 우리가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고대 서양의 철학자들조차 장애인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같은 고대 서양의 장애인들의 인식들은 중세로 이어졌고, 중세 서양에서는 장애인을 신에게 벌을 받는 자로 생각하여 악한 존재로 여겨져 이들에 대한 고문과 사형이 끊이지 않았고, 장애인들을 철저히 배척했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의 대한 대우는 어떠했을까? 그들 역시 서양의 사람들처럼 장애인들을 악한 사람들과라고 생각하여 배척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선시대 때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는 서양과는 달랐다고 한다. “장애인들에게 환곡을 우선적으로 베풀고, 거처할 집을 잃게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세종실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한 나라의 임금이 직접 장애인들의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 다양했었다. 그중에서도 국가 주도로 설립된 시각장애인 고용기관 ‘명통시’는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던 곳이었고 이곳에 고용된 이들은 나라의 제사에서 경을 읽거나 기우제를 드리는 등 관리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직을 만들어 그들의 자립을 돕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였다. 점을 치는 점술가, 귀신을 쫓는 독경사, 궁중 연회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관현맹인 등 이들 대부분이 장애인들이었다.

“동서 활인원이 맡아 장애인들을 후하게 구휼하며 분기마다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라”고 세종실록에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근이 들면 그들을 가장 먼저 구휼하고, 몸이 아픈 장애인에게는 보조 도우미까지 두었고, 그들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했으며,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들의 생활에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장애인부양 가족에게는 병역을 면제하고, 장애인이 살해된 마을은 그 등급을 강등 했고, 장애인을 학대하면 엄벌로 다스리는 등 백성들 간의 장애인 차별도 방지하였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장애인들은 겉모습과 신분보다는 그들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나라였고, 조선시대의 장애인 대우 정책은 차별 없이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힘썼다.

조선 건국의 일등 공신이자 명망 높았던 재상 ‘허조’는 중증척추장애인이었고, 다리가 하나뿐이라 왕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불충으로 여겨 사직을 청하였지만 거절당했던 외다리 총신 ‘윤지원’을 비롯하여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외교특사로 임명되었던 청각장애인 ‘이덕수’가 있었다. 이외에도 역사를 빛냈던 조선시대의 수많은 장애인들은 조선시대의 장애인정책이 길러낸 훌륭한 인재들이었다.

조선은 그 어떤 시대의 나라보다도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차별하지 않았던 나라였다. 조선시대의 장애인은 그저 ‘장애’로 인하여 남들보다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일 뿐, 그들을 ‘버려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박연은 “세상에 버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했다.

조선시대에는 비록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장애인을 ‘이해’하는 것만큼은 지금의 시대보다 넓었던 것 같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은 의학적으로 장애인들의 대한 지식은 발전하였지만, 마음으로 장애인들은 이해하고 인식하는 부분에서는 과거의 조선시대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자료 출처- http://www.pikicast.com/#!/menu=landing&content_id=175370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생각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인과 복권

이하용



1등 당첨에 꿈을 꾸며 나는 매일 편의점에서 연금복권을 사고 있다. 내가 복권을 사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당연히 복권이 당첨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면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나와 같은 장애인을 간접적으로나마 부담 없이 돕고 싶어서이다.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자 발표 날까지 일주일이 걸리는데 그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내가 당첨자가 되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보낼 수 있다.

우선 복권의 변천을 살펴보자. 구약성서에서는 제비뽑기에 의한 재산 분배 기록이 있고, 로마의 네로나 아우구스투스가 재산이나 노예를 나누어 주기 위해 복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형태와 같은 복권은 1930년 이탈리아의 피렌체지방에서 발행한 피렌체복권이 시초라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복권은 광복 이후 1947년 12월에 발행된 올림픽 후원권이 고,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발행된 복권은 서울지역에서만 판매되었다. 6·25전쟁 이후 산업부흥 자금과 사회복지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1956년 2월부터 매월 1회씩 10회에 걸쳐 애국복권이 총 50억 환어치 발행되었고 당시 국가가 발행 주체가 되었고 조흥은행이 대행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는 복권을 재해대책이나 산업부흥자금 마련을 위해 수시로 발행하였는데, 정기적인 형태로 발행된 첫 번째 복권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지원을 위해 1969년에 옛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한 주택복권이다.

주택복권은 1983년까지 574회, 약 1,016억 원의 복권이 판매되었으며, 그 중 당첨금 및 발행경비 등을 제한 약 420억 원을 서민주택자금으로 조성, 군경유가족과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원호 대상자, 장애인, 수급자 등을 위한 아파트 등 약 4만 5,000여 호의 서민 주택을 건설하였다.

주택복권 시대가 끝나고 2002년 12월 2일부터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인생 역전을 카피로 내세웠던 로또는 2003년에 복권 시장을 평정하였는데 2010년에는 2조 4,300억 원으로 전체복권 판매수입 액인 2조 5,200억 원 중 96%를 차지하며 명명백백한 로또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정부는 로또 판매점을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로또 판매점이 부족하여 로또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고려한 방안이었으며, 동시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3년에 걸쳐 2000여 곳의 판매점을 확충하였다.

로또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로또는 사행성과 중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복권 재정 조달, 불법 도박의 경도성 순화 등 순기능이 있으므로 불이익 보단 이익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행성 조장, 노동 의욕저하, 중독, 범죄 유발 등의 사회문제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최근 경제 위기, 고령화, 실업 증가 및 노동시장 불안정성 등의 영향으로 복권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복권발행을 통한 재정확보가 보충적인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되고, 복권발매 수익은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사행성이 조장되지 않도록 복권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복권이란 말로 정부가 인정하는 가장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3648>

그림 자료-<http://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8583>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생각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영화 ‘어린왕자’

전난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센터일도 병행해야만 했던 작년 한해는 시간적 여유보다 저질체력으로 인한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한해를 보낸 것 같다. 사회복지사 과정도 다 끝났으니 올 해는 그동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영화를 맘껏 볼 생각이다.

그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영화는 바로 ‘어린왕자’이다.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를 영화화 한 것이지만, 새로운 장면들을 추가하여 진부하지 않으면서 색다른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다.

우선 새로이 추가된 장면과 영화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현실어딘가에서 실제로 살고 있을 법한 자기 딸의 인생 계획표를 연, 월, 일별로 완벽하게 짜놓은 싱글 맘과 그 완벽한 계획표대로 생활하는 딸, 그리고 젊은 시절 사막에 비행기의 불시착으로 인해 어린왕자를 만났던 괴짜 이웃 할아버지가 등장한다.

싱글 맘이지만 하나 밖에 없는 딸을 명문사립고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계획적이고도 치밀하게 준비하지만 기존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이 학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나요?’란 예상 질문이 ‘넌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란 질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면접을 치루는 바람에 불합격하고 만다. 그러자 싱글 맘은 아예 그 학교의 동네로 이사를 하고 그로인해 옆집에 살고 있는 괴짜 비행기 조종자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여기서 ‘넌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란 질문은 전반적인 영화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생텍쥐페리로 추정되는 이 할아버지는 자신이 사막에서 만난 어린왕자와의 만남과 경험담을 소녀에게 그림과 글로 이야기해 준다. 생텍쥐페리가 그린 삽화들은 영화에서는 괴짜 할아버지가 그리고 작성한 걸로 나오며, 실제로 생텍쥐페리는 비행기 조종사였고 ‘야간비행’이란 소설도 집필하였으며 그의 마지막 행적도 비행기와 함께 실종 되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사막에서 만난 어린왕자는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나타나고 할아버지는 양을 여러 번 그려주지만 매번 맘에 안 들어 하자 상자를 그려주고 만다. 그때서야 만족하는 어린왕자…….

소녀와 할아버지는 그렇게 가까워지고 소녀는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렵게나마 알아가게 되고 그러는 중 할아버지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자 어린왕자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소녀는 할아버지의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소행성 B612에서 어른이 되어버린 어린왕자가 굴뚝청소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소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한걸음에 달려가는데……. 하지만 이미 어른이 된 어린왕자는 자신이 살아가던 소행성도 그 소행성에서 같이 살아가던 장미도 모두 잊어버린 채 굴뚝청소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저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다.

소행성 B612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는 모든 별들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하늘에 그 많은 별들을 모아 쓸모 있는 것들로 바꾸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다. 과연 그 수많은 별들이 쓸모없을까? 그러한 생각에 일환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져 그의 계략에 의해 어린왕자는 현실에 전전긍긍하는 어른으로 만든 것이다. 그는 장자의 무용(武勇)의 용(用), 즉 쓸모없는 것이 쓸모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을 모르는 모양이다.

어린 날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어린왕자는 소녀의 도움으로 옛날의 자신에 존재와 자기가 살았던 소행성과 장미까지 모두 다 기억을 되찾게 되면서 ‘별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꽃송이를 숨겨놓고 있기 때문이야.’,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에 우물을 숨겨놓았기 때문이야.’ 등등 이러한 주옥같은 대사를 남긴다.

소녀는 어린왕자의 기억을 되찾아 준 뒤 지구(현실)로 돌아와 그동안 할아버지가 그리고 쓴 글들을 모아 한편의 책으로 만들어서 할아버지께 선물한다. 할아버지와 소녀의 우정이 돋보였던 장면이었다.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싱글 맘이 딸에게 하는 말(년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과 어린왕자가 비행기 조종사에게 들었던 말(년 분명 멋진 어른이 될 거야), 그리고 명문시립고등학교 면접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어떤 어른이 되고 싶나요?)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고 어쩔 수 없이 되는 어른이 아니라 진짜 멋진 어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든다.

과연 진짜 멋진 어른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인(어른)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그 나이는 누구에게나 처음 살아보는 것이기에 설렘 속에 서둘러 두려운 건 마찬가지로 일거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있듯이…….

이 영화가 맘에 들었던 것은 제작 기법이였다. 모녀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고 할아버지가 소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 어린왕자 내용은 마치 한지로 만든 인형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스톱모션으로 제작되어서 아날로그 느낌이 풍겨져 나와 어린왕자 이야기가 한층 더 따뜻하게 다가왔다.

영화 ‘어린왕자’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한번쯤 보면 좋을만한 아니, 어른들이 더 봐야 할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말하고 싶다.

장파라치

이하용



상계2동 동네입구 가파른 언덕으로 휠체어장애인과 다른 중증장애인들이 올라가기 힘들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역시 상계2동 동네입구 가파른 계단.
가파른 언덕도 위험한데, 가파른 계단이라니!!! 장애인들은 어찌 살란 말인가!!!

2016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

이영훈

▶ 고용 . 노동 분야

1. 최저임금이 올라갑니다.

기존 5,580원에서 올해부터는 6,030원으로 450원 오른다고 합니다.

2.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내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이 725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됐다. 지원기간도 2018년까지 3년 연장된다.

3. 햇살론 지원 2020년까지 연장.

금융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햇살론 지원 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내년 지원 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4000억 원까지 확대된다.

▶ 2016년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1. 4대 중증질환 국민건강보험 적용확대

심장, 뇌혈관, 암, 희귀난치성질환진단약제선택, 치료방법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형 의료 유전자검사 보험적용하여 수면내시경 보험급여 적용이된다.

2. 2016년 기준 생계급여 소득자,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이 월소득 인정액이 127만원 가구로 확대 최저 보장 수준도 127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3.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금년에는 38만 명으로 늘립니다.

4.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국가예방접종 항목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용전액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5.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대상 기준확대

연령 - 만65세 이상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4인기준, 2.635천원)소득계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

신청 -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6.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단가를 50 ~ 60만원으로 인상.

7. 아빠도 육아휴직 3개월.

남성의 육아휴직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됩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가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휴직자의 휴직급여를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8.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무료입니다.

만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6개월 간격 2회에 걸친 자궁경부암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9. 상속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상속재산 공제액이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각각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10. 정년 60세 기업이 늘어납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전영늘 60세로 연장해야 합니다. 단 300인 미만 사업장들은 내년 2017년부터 시행합니다.

11. 토익 새롭게 바뀝니다.

올해 5월 29일 시험부터 영어 공인시험 토익의 문제유형이 새롭게 바뀝니다. 영어 사용 환경이 달라지면서 10년 만에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minies4789/220587512465>

이달의 정보

전난희

2016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주요 내용

상속재산 공제액 상향, 활동보조가산급여 신설 등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여기에 담긴 장애인 관련된 정책을 정리했다.

■장애인 상속재산 공제액 1000만 원 상향조정=먼저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상속재산 공제액이 현행 연간 500만 원에서 연간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 이 외에도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생활 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취약계층이 생활 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공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기상청이 별도의 웹기반 신청 시스템을 개발해 취약계층으로부터 개별신청이 받는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3500명 확대=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가산급여를 신설해 지급한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더 늘린다. 현행 5만 75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 특히 12억원을 들여 활동보조가산급여를 신설한다. 활동보조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 안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급된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급여도 올해 대비 2.2%인상해 현행 8810원에서 9000원으로 확정했다.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확대된다. 이에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소,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 확대 제공된다. 광역지자체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가 신규 설치돼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다. 더불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가 신규 설치되며,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5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10억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 최소 75만 7000원으로=내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

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부과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에서 최대 126만 270원까지 부과된다. 중증여성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여성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51228121253328275>

내년 기초·장애인연금 지급 소득기준액 상향조정

단독가구 93만원→100만원...부부가구 월 148만원→160만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월 93만원에서 7만원(7.5%) 인상한 금액이다. 부부가구 기준은 월 148만8000원에서 11만2000원 인상한 160만원으로 정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토지의 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이번 조치로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93만원 초과 100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과 중증장애인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전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더라도 이번 선정기준액을 올렸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일부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에서 각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수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 받으면 된다.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을 제공한다. 전국에 있는 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뉴스 <http://news.nate.com/view/20151231n13162?modit=1451538700>

‘짧은 이야기, 긴 생각’ 중…….

이어령

모든 삶에는 거꾸로 된
거울 뒤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불행이행이 되고, 행이 불행이 되는
새옹지마(塞翁之馬)의 변화 같은 것이지요.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우물 속 같은 절망의 극한 속에서도
불행을 이용하여 행운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16년 01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두용	김숙이	김석현	김은순	김용자	김재환	김종민
김현실	김태환	권윤정	곽삼봉	곽광현	박계형	박동열	박민숙
박원배	박시연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이경희	이승준	이영숙
이영석	이하용	이영훈	이화선	임상욱	오재준	유수근	안병훈
우의정	윤두선	예성호	장민정	전난희	정주영	정종남	최윤숙
				최전균	홍점표	황석재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기총회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을 위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에 지지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2016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6년 1월 29일(금) 15시~18시.

나. 장 소 :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

다. 총회안건 : 1) 2015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승인 건.
2)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3) 기타 안건.